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180회

<가로열쇠>

1. 발해의 시조, 고구려의 유민으로, 713년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해 국호를 발해로 고쳤다.
4.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오랜 ○○이다.
6. 어깨를 자주 쳐들어 보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는 장구 가락에 맞춰 어깨를 ○○○ 움직였다.
7. 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8. ○○건달. 한문도 없는 처지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11. 귀·눈·입·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14. 체온이 올라갈 때 열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 안티피린, 아세트아닐리드, 아스피린 따위가 있다.
17. 동그랗게 생긴 모양. 연필로 종이 위에 ○○○, 세모, 네모 따위를 그린다.
18. 불길하고 무서운 꿈.
19.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 위낙 ○○○가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처음엔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왔어요.
20. 뼈의 중심부에 가득 차 있는 연한 물질.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든다.

<세로열쇠>

2.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임. 그는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을 냈다.

3.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를 가진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몇몇 ○○○○ 때문에 일의 진척이 느리다.
5.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6.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짓. 선생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 아니었던 것이다.
8. 혈액의 유형 성분 가운데 하나. 골수, 지라, 림프샘에서 만들어진다. 적혈구보다 크고, 무색의 핵이 있다.
9. 경련성의 기침을 일으키는 어린이의 급성 전염병. 3~6세의 어린이들이 잘 걸리며 특히 겨울부터 봄에 걸쳐 유행하는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병에 걸리면 경과가 백일 가까이 걸린다.
10. 복습이나 예습 따위를 위하여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내 주는 과제.
12. 목의 뒤쪽 부분과 그 아래 근처.
13.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렵 뜻한 상태.
15. 채식 훈련에서, 줄지어 선 채로 약간 편하게 왼발을 약간 옆으로 벌리고 양손을 등허리에서 맞잡으라는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16.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 그는 식구들이 깎까 봐 ○○○ 집을 나왔다.
18. 인사, 감사, 친애, 화해 따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 내어 잡는 일.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곳: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번지 (감삼동 68-4) 4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발표: 1,328호



1,178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이용권 2매 ☎ 608-5000

- 박주영(달성군 가창면)
- 김정현(달서구 선원남로)
- 장기호(달서구 감삼남2안길)
- 전은준(달서구 월곡로)
- 백선경(달서구 새동네로)
- 최상진(달성군 화원읍)

<1,178회 정답>

요	조	숙	녀		짜	꿍
아	람		련	변	리	사
바		우	공	이	산	랑
타	체			반		새
	자	국		도	긴	개
리	그		세	수	가	돌
마			도	파	민	
새	치	기	꼭	가	숨	속
참	사	각	지	대		담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화)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www.prsinmun.co.kr (우편번호: 42640)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 ▶간별 주간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 ▶발행인 김현두
- ▶편집인 김현두

☑은행계좌안내
SC 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 푸른신문(김현두)

*구독료 1년 15,000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prsinmun.co.kr

푸른신문 구독신청 방법

- 구독료 : 1년 15,000원
-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푸른신문(김현두)
- 전화 : (053) 572-6000 팩스 : (053) 572-6006

달서구·달성군 지역신문 '푸른신문'은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하고 작은 이야기들 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